

기적의 상자에서 유래하는 수수께끼 같은 치료파

도르테 한센(Dörte Hansen) / 이재원('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이제 공명의 원리는 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가장 최소 단위에 이르는 세포까지 모두 진동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동은 질병에 의해서 방해받게 됩니다. 마치 악기의 공명관이 고장나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듯이 우리 몸도 공명관(세포)이 왜곡되면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생체공명기를 통해서 그러한 원래의 진동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과 치료사의 공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편집자 주)

생체 공명기는 공상과학영화를 좋아하는 팬들, 환자들 그리고 의사들이 꿈꾸어 왔던 것이다. 이것은 모든 병들을 치료하고, 자가진단하기도 하는 하이테크 기계이다. 이제는 고통스러운 주사도 존재하지 않고, 쓴 약을 삼키는 것도 마지막이 될 터이다.

대신에 의료요술상자가 병든 육체를 진동시키면서 건강한 파장이 생겨나고 환자는 병이 낫고, 건강을 찾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부작용도 없다.

의학박사 프란츠 모렐(Franz Morell)과 전자공학자 에리히 라세(Erich

Rasche)가 1977년에 치료법 기계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가장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진동한다. 이러한 진동은 발병에 의해서 방해받게 된다. 인간의 육체는 약기의 공명판과 비교될 수 있는데 그 공명판은 건강할 경우에만 소리가 나고 최적인 상태가 된다. 모든 질병은 공명판의 소리가 왜곡됨에 기인한다.

두 발명자의 이름을 따서 초기에는 '모라(MORA)-기계'라고 불리웠던 생체공명기는 제작자의 말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몸에 장착된 전극을 통해서 환자의 전자기파 진동이 기계로 들어온다. '분리기'를 통해 부조화스럽고 병의 원인이 되는 파동들은 조화로운 파장과 분리된다. 이제 병을 일으키는 파동들은 '반영상(反影象) 개폐기'에 의해서 변환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파동들은 180도로 회전하게 되고, 몸에 장착된 전극을 지나 빠져나오게 된다. 여기서 아주 상쾌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방법에 대해 비판자들은 어이없는 소리라고 말한다. 즉 이러한 개념은 물리학적 인식과 대립되고, 이론의 설명 또한 사이버 학문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생체공명치료법(BRT: Bioresonance Therapy)은 환자들을 잘못 인도할 소지가 있고, 관념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체공명치료법을 승인하지 않는 보험회사들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즉, 보험회사측에 의하면 생체공명치료법의 효과는 충분히 논박될 수 있고, 그러한 생물물리학적 개념은 아주 혼란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고, 치료법의 성공은 단지 가짜효과(플라시보 효과)와 다름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생체공명 치료법이 신흥종교인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칼 모렐이 사이언톨로지 신자임에 틀림없고, 생체공명기 '바이콤(Bicom)'을 생산했던 레구메트(Regumed)사의 전 사장도 사이언톨로지 신자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인 방법론의 신봉자들은 개의치 않는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결과만을 제시한다. "나는 보통 일반의이다.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함부르

크의 중급 규모의 병원에서 4년 전부터 생체공명치료법을 실시하고 있는 토마스 카우프만(Thomas Kaufmann) 박사는 말한다. “가짜효과이든 그렇지 않든 또는 마술이든 아니든 나에게서는 전혀 상관없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치료효과이다”

그리고 특히 알리지 치료에 있어서 이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내가 생체공명치료법을 사용하여 알리지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명백한 성과가 있다는 사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완치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어쨌든 나는 학교에서 배운 의학적인 치료법보다도 생체공명치료법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카우프만씨의 경험은 많은 생체공명치료사에 의해서 증명된다. 생체공명치료사들은 고초열, 신경성피부염, 천식 그리고 코감기 등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독일의 저명한 생체공명치료사 중의 한 명인 게르하르트 룬멜 박사는 모든 알리지성 질병에 있어서 90퍼센트 이상의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다. 그가 치료하고 있는 신경성 피부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10번 내지 15번에 걸친 치료를 통해서 이미 완치가 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유 알리지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의 몸은 우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부정적인) 우유정보는 몸 속에서 용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생체공명기는 신체 고유의 진동과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리지의 진동과 작업을 하는 것이다. 우유가 채워진 관이 기계의 입구에 있고, 우유에 대한 정보는 기계를 통해서 파악되고 변형되어 환자에게 전달된다. 이로써 신체의 “진동 축적기”에 존재하는 우유의 정보가 지워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용해되는 것이다.

편두통, 류마치스, 위염 그리고 좌창 같은 질병들을 알리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룬멜 박사는 생체공명법의 물리학적 토대가 대부분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 룬멜 박사나 그의 동료들은 기계의 작동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학습 받은 의사가 자신들의 기계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초음파 기계 또는 핵단층촬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떤 의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심한 넉센스, 환자기만”과 같은 거친 비판이 생체공명 치료법의 옹호자들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옹호자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치료가 성공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며 그러한 성공은 종종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룸멜 박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모든 새로운 치료방식이 부딪히는 회의와 거부이다. 오랫동안 침술과 동종요법 또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으나 이제 조금씩 좋아졌다. 생체공명치료사들은 이러한 예들을 언급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치료형태가 침술 그리고 동종요법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다. 마치 극동의 의사들의 침술처럼 이런 요법에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신체에 너지인 기가 흐르고 있다.


1971년 독일인 의사 라인홀트 폴(Reinhold Voll)은 침술이 전기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렐과 라체는 자신들의 ‘전기침’에 근거를 두고 아주 단순하게 진료했다. 그들의 모라 기계에서 치료사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침 놓을 지점을 찾을 필요가 없고, 몸 전체의 맥박을 알아낼 수 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기계에서는 개별적인 장기를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주파수를 찾아낸다.

보도 쾰러(Bodo Köhler) 박사는 생체공명법을 ‘기술적인 동종요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치료법에 관한 책의 저자이기도 한 쾰러 박사는 생체공명이라는 개념을 “생리학적 정보론”으로 대체했다. 그는 생리학적 정보론이라는 제목을 가진 자신의 책에서 생체공명치료법의 이론적인 토대에 관해 160여 쪽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쾰러 박사는 “단순 소화(消火)-치료법”의 견해와 반대되는 주장을 나타내면서 161쪽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이 책에서 언급되는 것들을 수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점 없이 따라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실질적인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이해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이 알려진 것들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환경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문장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생체공명치료법은 환자와 치료사 사이의 공명을 강화시키는 것

이다. 따라서 치료법의 성과에 있어서는 내적인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내적인 공명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만 한다. 경외심으로 가득 찬 놀라움과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열린 기쁨.”

퀸러 박사는 예를 들어 자신의 식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는 분별 없는 환자를 보내달라고 자신의 친구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생체공명치료법이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즉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된 자신의 생활습관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의료비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외심으로 가득 찬 놀라움’ 또는 ‘열린 기쁨’은 그의 저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체공명치료법은 붐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에 사는 대략 6000여 명의 치료사가 이 치료법으로 진료하고 있다. 그들 중에 2000여 명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한 의사들이다. 그리고 생체공명기의 옹호자들과 비판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생체 공명기는 해롭지 않다.”(C7382F 01/66 P.M.PersP) 

※ 이 글은 독일의 신의료 잡지 P.M. Perspektive의 “Bioresonanz therapie”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논쟁거리: 전극들은 신체의 전자기적 진동을 받아들여, 양극으로 전환된 형태로 되돌려준다.

■ 역자 : 이재원

독일 뮌스터 대학 언어학 박사. 현 한국 외국어대, 덕성여대, 명지대, 서울여대 강사.

